

전문가 협력을 통한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책수리마수리”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llaborative Network for Children's Reading Program: Making of Bookmagic

김 은 하(Eun-Ha Kim)**

〈 목 차 〉

I. 서론	III. “책수리마수리” 개발과정과 프로그램의 특성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프로그램의 개발배경과 과정
2. 전문가 협력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사례	2.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적 특성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IV. 프로그램 개발의 성과와 한계
II.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배경	1. 프로그램 개발의 성과
1. 주제 중심 독서활동	2.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
2. 활동 중심 독서활동	V. 결론 및 제언
3. 독서의 즐거움을 위한 독서활동	

초 록

이제까지 개발된 많은 어린이 대상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사서모임이나 교사모임, 어린이책 시민단체, 연구자 집단, 도서관원 사기업, 출판업계 등 직무와 관련된 단체별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개별 단체 내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한 성과와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고 공유되었으나, 단체 간의 상호교차적인 정보와 기술의 교환은 활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른 전문가 집단의 성과를 어린이 사서가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른 전문가 집단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했다. “책수리마수리”는 책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다. “책수리마수리”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의 경우, 연구자, 공공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 초등학교 교사, 그림책 작가, 코디네이터 사서가 한 팀이 되어 ‘크기’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문가 협력을 통해 어린이 사서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전달자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진행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의 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키워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사서, 독서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협력

ABSTRACT

Bookmagic is a new reading program that encourages children of 5-15 ages to enjoy reading. *Bookmagic* provides free downloadable resources such as pre-reading and after-reading activities, booklists, posters and awards. Since a number of reading program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published and used, *Bookmagic* is not a totally new project. However, it is distinguished by the process of creating the program. While most of the reading programs available in Korea were developed by individual occupations (academic experts, private enterprises, civic organisations, associations of librarians or teachers), *Bookmagic* was designed by a team of various professionals including a picture book author, an academic researcher, a primary school teacher, a school librarian and two public librarians. Working in a partnership with other professionals, participant librarians had a unique opportunity to develop expertises on reading education as a creator of a program rather than as a deliverer.

Keywords: Children's library, Children's librarian, Development of Reading Program, Collaborative Network for Reading Program

* 본 논문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로 2010년 6월에 제주에서 열린 제 4회 국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준 국내외의 토론자 및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세심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ehk21@korea.ac.kr)

• 접수일: 2010년 8월 27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6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서관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은 어린이 사서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역량 중의 하나이다.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어린이 서비스분과(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ALSC)¹⁾는 어린이 사서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서비스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 양육자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② 행정 및 경영능력, ③ 의사소통 기술, ④ 어린이 장서를 개발하고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능력, ⑥ 홍보기관 및 정부기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기술, ⑦ 전문성과 전문적 성장을 위한 계속적 노력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이 사서가 어린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가 부정적인 증거를 밝히고 있다. 첫째, 사서 준비과정의 측면에서,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과정에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²⁾ 전체 문헌정보학과 설치 대학 중 어린이 사서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구조사 당시인 2007년 현재, <독서지도 및 교육론>의 경우 학부의 72.9%, 대학원의 31.6%만이, <어린이청소년자료>는 학부의 경우 31.2%, 대학원의 0.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 사서로서의 전문적 지식은 '도서관에서의 현장 실무 경험'(전체의 30.6%)을 통해 가장 많이 습득되는 것으로 조사된다.³⁾ 대다수의 어린이 사서들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 없이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실에 배치되고 나서야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배우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게 된다는 것이다.⁴⁾ 실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가는 방식 다음으로 어린이 사서가 전문성을 획득 방식은 '단체나 교육기관의 참여'(22%)를 통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⁵⁾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계속교육과정과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의 워크숍,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책읽는

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ome page.

<<http://www.ala.org/ala/mgrps/divs/alsc/competencies.cfm>> [cited 2010. 6. 8].

2) 정혜미, 차미경,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12), pp.161-181.

3) 차미경 등,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6), pp.95-115.

4) 이연옥, "어린이 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233-256.

5) 차미경 등, 전제논문.

사회문화재단,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등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 외에도 어린이 사서들은 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⁶⁾

그렇다면, 어린이 사서들은 어린이 서비스 중 어떤 정보와 역량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 사서들이 활용하는 도서관 협력체계를 분석한 논문은⁷⁾ ‘어린이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린이 사서들의 가장 큰 요구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순위별 선호도를 순위별로 알아보면 ① 독서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② 독서자료의 안내와 제공, ③ 장르별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 등으로,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어린이 사서들이 원하는 계속교육의 방식은 이론적 강의보다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과 사례중심의 연수였다.⁸⁾

이상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를 요약하면 어린이 사서들의 역량 중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요구는 컸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직전(pre-service) 혹은 계속(in-service) 교육의 기회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쌓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이 네트워킹은 주로 사서간, 도서관간의 협의체에 국한되어 왔다고 요약된다.

사서 뿐 아니라 이제까지 개발된 많은 어린이 대상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사서모임이나 교사모임, 어린이책 시민단체, 연구자 집단, 독서관련 사기업, 출판업계 등 직무와 관련된 단체별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개별 단체 내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한 성과와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고 공유되었으나, 단체 간의 상호교차적인 정보와 기술의 교환은 활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른 전문가 집단의 성과를 어린이 사서가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른 전문가 집단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했다. 어린이에 대한 앎, 어린이 책에 대한 앎, 독서 교육에 대한 앎을 배우고 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전문 영역의 축적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서 지도자’로서의 사서 교육, 즉 아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교육대상인, 성인 사서의 내/외적인 동기, 작업의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연결망은 잘 만들어지지 못했다. 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어린이 사서들이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은 무엇일까? 어린이 사서들이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전달자를 넘어서 현장 경험을 십분 살려

6) 박철완 등, “어린이 서비스 협력체계 및 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2호(2008. 12), pp.63-84.

7) 박철완 등, 전제논문. ; 박철완, 노영희, “어린이 사서의 상호협력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405-427.

8) 차미경 등, 전제논문.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험운동을 통해 검증하고, 이후의 사서 교육에서도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전문가 협력을 통한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이론적 기초 및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세부적으로는 2010년 전문가 협력 모델로 개발된 “책수리마수리”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첫째,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바탕을 밝힌다. 둘째, 전문가 협력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이 개발 모델이 가진 장점과 한계, 전망을 논의한다.

2. 전문가 협력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사례

전문가 협력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CSLP(Collaborative Summer Library Program)를 들 수 있다. CSLP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독서프로그램 자료와 보조적인 물품을 예술가들 및 협력업체와 만들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 도서관들에 제공한다. 1987년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이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은 현재 전미의 공공도서관에 걸쳐 확산되었다.⁹⁾ 주정부가 지원하는 미국의 CSLP와 달리 영국의 리딩 에이전시(The Reading Agency)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여름방학마다 독서 챌린지(Reading Challenge)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영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한다.¹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첫 해인 1999년부터 개발책임자로 참여한 앤 샐렛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3인의 프로그램 핵심 개발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림책 작가, BBC의 어린이 프로그램 관계자, 웹사이트 디자이너 등 주제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한다. 프로그램 활동지, 포스터, 회원카드, 기념품, 스티커, 상장 등 다양한 자료들이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웹사이트에 올려진다. 프로그램에 따라 관련 단체가 협력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2007년 ‘야생에서의 독서’(The Big Wild Read)를 주제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BBC, 산림트러스트와 함께 자연보호 캠페인 및 나무 심기, 꽃씨 심기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의 한 도서관이, 혹은 지역의 한 어린이 사서가 자체적으로는 개발하고 운영하기 힘들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축적된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협력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전문가 협력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진 독서 프로그램은 비용과 시간, 노력 대비 효과가 높은 자료로 남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9) Collaborative Summer Library Program Home page, <<http://www.csllreads.org/>> [cited 2010. 8. 16].

10) Reading agency Home page,

<<http://www.readingagency.org.uk/children/summer-reading-challenge/>> [cited 2010. 8. 16].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외의 독서 프로그램 이론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문헌을 주요 자료로 삼은 문헌연구이다. 보충적으로 “책수리마수리”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 그림책 작가, 교사, 학교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 코디네이터 사서의 인터뷰와 영국의 여름 독서 챌린지(Reading Challenge)의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인 앤 사락(Anne Sarrag)과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 협력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발된 프로그램이 현장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를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II.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배경

“책수리마수리”에 담긴 독서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책수리마수리”는 주제중심, 활동중심, 즐거움을 위한 독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 문해력을 기르며, 함께 공동체적으로 즐기는 독서활동을 지향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제반의 자료를 웹사이트 상에 제공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용 받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주제 중심, 활동 중심, 즐거움을 위한 독서 중심, 각각의 독서활동이 가진 성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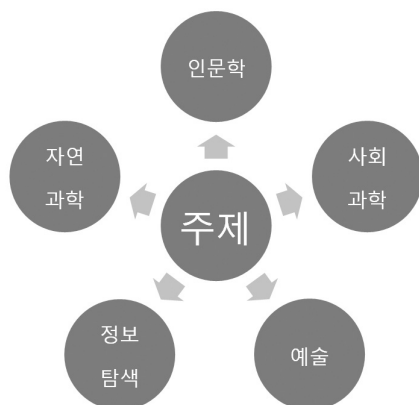
1. 주제 중심 독서활동

2010년의 “책수리마수리”의 주제는 ‘크거나 작거나’로, ‘크기’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Morrow는 주제 중심의 독서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¹¹⁾ 첫째는 장르나 작가를 주제로 하는 독서이다. 예를 들어, 환타지 소설, 추리 소설, 도감, 만화 등 하나의 장르의 책들을 읽거나, 권정생, 한비야, 안소니 브라운 등 한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장르 혹은 작가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고 탐구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주제를 정해 놓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와 작가의 책을 읽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래에 대한 자연과학 책, 사회과학책, 문학책 등을 읽고 이야기하고 독전/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독서활동이 그 일부로 구성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관한 프로젝트 수업을 읽기, 글쓰기, 음악, 미술, 만지거나 움직이는 등 몸을 이용한(kinesthetic) 활동 등 다양

11) Morrow, L. *The Literacy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Boston : Allyn & Bacon, 2001).

한 활동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하나가 독서활동이 되는 것이다. Morrow의 구분에 의하면, “책수리마수리”에 실린 프로그램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두 번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독서 프로그램의 경우 세 번째 방식이 될 것이다.

주제별 독서 프로그램은 교과별 독서 프로그램에 비해서 학생들의 읽기 ‘동기’와 ‘참여’를 높인다고 보고된다.¹²⁾ 또한 주제별 독서는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책, 다양한 학문적 접근방식을 접하게 만든다. 아래의 〈그림 1, 2〉와 같이 ‘크기’를 주제로 놓고 인문학적 탐색(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작은 행위나 용기, 사회의 약자와 강자가 갖는 감정, 작지만 소중한 것들), 사회과학적 영역(많고 적은 인구와 자원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들간의 공존), 예술적 영역(크고 작은 패턴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기), 정보탐색(크기와 관련된 정보 찾기), 자연과학적 영역(측정, 큰 생물, 작은 생물)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탐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주제별 접근 방식은 독서의 영역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읽기도 가능해진다. 크기와 관련된 이야기(narrative), 설명글(expository), 사이버자료, 표와 그래프, 그림, 사진, 만화 등 다양한 기호와 상징을 읽고 쓸 수 있다.



〈그림 1〉 주제별 접근방식의 책읽기 영역



〈그림 2〉 “책수리마수리”의 책읽기 영역

2. 활동 중심 독서활동

“책수리마수리”는 책의 글자 읽어내기,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등 독서를 분절된 기능의 습득 과정이 아니라, 책을 소재로 함께 하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김명순(2005)은 활동중심 독서를 기능(skill) 중심의 독서교육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2) 좀 더 정교한 주제별 독서 프로그램은 미국의 Guthrie 외(2004)가 개발하고 사례 연구한 ‘개념지향적(Concept-oriented) 독서 지도’(CORI)가 있다.

“독서과정을 기능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세분된 하위 기능 하나하나의 분립적 지도를 유도하고, 이들 기능을 습득하는 데서 그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독서의 과정을 활동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위 항목 하나하나가 소단위 활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들 각각은 기계적으로 단계적이기보다 여러 기능들이 서로 관여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¹³⁾

활동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에서는 독자를 능숙한 정보처리자로 보기 보다는 읽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독자로 여긴다. 또한 독서행위를 읽고 있는 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관련된 문제에 발을 들여놓는 사회적인 행위로 여긴다. 김명순이 Tompkins와 Greaves 외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활동중심 독서과정의 예는 <표 1>과 같다.

<표 1> 활동중심 독서과정의 예

<p><독서 전 활동></p> <p>↓</p>	<p>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세우기</p> <p>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형성하기</p> <p>텍스트 관련 특수 지식을 형성하기</p> <p>독서를 자신의 삶과 관련짓기</p> <p>주요 어휘와 개념을 미리 가르치기</p> <p>사전 질문하고, 예측하고 말하기</p> <p>독해 전략을 제시하기</p>
<p><독서 중 활동></p> <p>↓</p>	<p>목독하기</p> <p>학생들에게 읽어주기</p> <p>학생들이 소리 내서 읽기</p> <p>안내된 읽기</p> <p>텍스트 수정하기</p>
<p><독서 후 활동></p>	<p>질문하기</p> <p>토의하기</p> <p>쓰기</p> <p>극화하기</p> <p>비언어적 형태의 활동하기</p> <p>적용과 확장</p> <p>다시 가르치기</p>

“책수리마수리”는 위의 표에서 볼 때, 독서 전/중/후 활동에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담았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개인에 따라서, 독서 전 활동으로 혹은 독서 후 활동으로, 원하는대로 변주할 수 있다.

3. 독서의 즐거움을 위한 독서활동

“책수리마수리”는 독서지도 보다는 즐거움을 위한 독서의 관점에서 책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13) 김명순, “활동 중심 독서의 의미와 방향,” 독서연구, 제14권(2005. 12), p.66.

통해서 책에 대한 내적인 동기와 몰입을 불러 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영국문해협회(UKLA, United Kingdom Literacy Association)에 따르면 독서지도(Reading Instruction) 중심의 독서와 즐거움을 위한 독서(Reading for Pleasure)의 차이를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⁴⁾

〈표 2〉 독서지도와 즐거움을 위한 독서의 비교

독서지도가 중요시하는 것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중요시하는 것
읽기에 대한 학습 기능	읽을 거리의 선택
글자 깨치기와 독해	의지
체계적인 독자	몰입과 독자의 반응
교사의 지도 방향	평생 독자
교사 중심	아동이 원하는 방향
점수	아동 중심
단기 목표(레벨1, 레벨2 등)	성취
표준화	장기 목표(평생독자의 창조)
	개별화

한국에서의 많은 독서 프로그램이 독서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이나 입시 혹은 논술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독서에 대한 내적 동기를 잃기 쉽다. 즐거움을 위한 독서는 성취해야 할 혹은 검사받거나 평가받아야 할 목표에 맞추어 구조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생각들을 마음껏 펼치며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Ⅲ. “책수리마수리” 개발과정과 프로그램의 특성

1. 프로그램의 개발배경과 과정

가. 프로그램의 개발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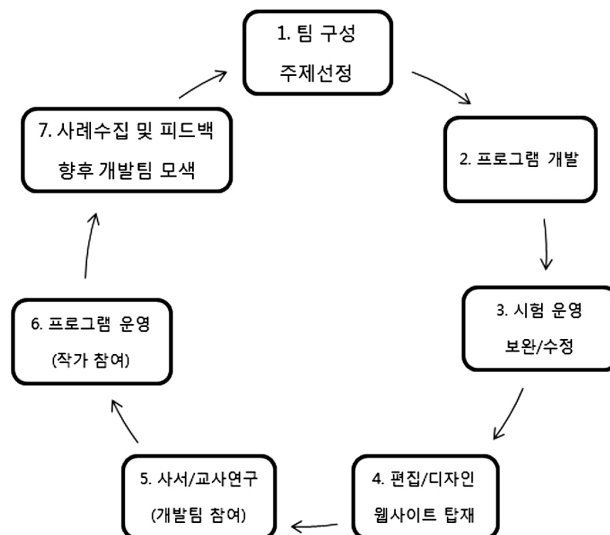
“책수리마수리”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기금을 마련한 독서문화진흥 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개발되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기획 담당자와 본 연구자가 2009년 여름부터 영국의 독서챌린지를 모델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여, 같은 해 11월 준비모임을 가졌다. 준비모임을 통해 다음의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읽기 자료 및

14) UK Literacy Association Home page, <<http://www.ukla.org>> [cited 2010. 7. 23]. ; A. Sarrag, “Inspiring Young Readers: The Role of Libraries in Promoting Reading for Pleasure,” 제4회 국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심포지엄 자료집: 녹색 미래의 꿈과 상상의 엔진, 어린이도서관(2010), p.58.

다각적인 접근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줄 것,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도서목록을 제공하되 가능한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록으로 선정할 것, 아이들의 학교안과 밖 독서교육 상황을 고루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와 공공도서관 사서가 함께 참여할 것, 팀에 그림책 작가가 참여하여 각종 삽화를 제작하고 이후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작가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 노력, 비용이 들도록 가능한 모든 활동지 및 보조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가능한 경기도의 지역적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2009년 12월초부터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어 2010년 6월까지 팀구성 및 주제선정,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프로그램 인터넷 탑재, 사서 및 교사연수를 마쳤다.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는 오프라인의 회의와 온라인의 카페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책수리마수리”는 책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만 5-15세 아동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과 활동지, 포스터 및 팬시용품들을 웹사이트(<http://bookmagic.kr>)에 올려놓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림 3>은 “책수리마수리”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운영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3> “책수리마수리” 프로그램 기획 - 개발 - 운영의 흐름

첫 단계에서는 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팀을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했다. “책수리마수리” TF Team은 독서교육 연구자, 공공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 초등학교 교사,

그림책 작가,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사서가 한 팀으로 구성되었다. 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짧게는 7년부터 길게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로써, 각자의 직종별 모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팀으로 보면 1인의 개인적 참가이지만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1인이기 때문에, 각각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모임을 통해, ‘크거나 작거나’라는 2010년의 주제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로, 여러 회에 걸친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회의 끝에 프로그램이 발전되었다. 함께 기획하고 자료를 찾고 논의하되, 각자 1-3가지의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맡아서 집필했다.

세 번째는 시험 운영과 프로그램 보완 단계로, TF팀 가운데,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사서와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현장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단계이다. 2010년의 경우, 시간이 촉박했던 이유로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시험운영을 했다. 수집된 프로그램은 다시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고, 연구자의 손을 거쳐 정리되었다.

네 번째는 그림책 작가와 디자이너가 완성된 프로그램 안과 활동지, 포스터 등을 디자인하고 편집하는 단계이다. 그림책 작가는 TF팀의 회의에 처음부터 참가해왔고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간단한 스케치로 팀원들과 확인하는 등 프로젝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림 작업을 했다. 예술적 감각으로 꾸며진 활동안과 활동지 및 포스터 등은 웹사이트에 탑재되었다. 모든 그림과 자료는 상업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저작권에 개의치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카피레프트(copyleft)’로 올려두었다.

다섯 번째, 사서 및 독서 담당 교사 연수이다. 이 연수는 2010년 5월말~6월초 동안 경기도 지역을 네 개의 광역권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코디네이션을 맡았던 사이버도서관의 담당 사서가 일정조정 및 홍보, 접수를 맡았고, 매 회 50여명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이 시기는 5월 어린이날 행사를 막 마치고 여유가 있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시작할 즈음이라서 연수의 시기로 적절했다. 연수에서는 개발에 참여한 TF팀이 연수자로 참여했다. 독서교육 연구자가 주제별 독서 프로그램 일반과 “책수리마수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TF팀에 참여한 교사와 사서가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발표를 했다. 코디네이터 사서는 향후 웹사이트를 통한 의사소통 및 건의사항,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건의되었다. 다이어트, 직업진로, 성(sex), 패션, 아이돌 등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나 학교수업에는 말해주지 않는 주제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TF팀이 개발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의 보완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 중 하나가 포스터와 메모지, 상장 등에 색상이 쓰인 면이 넓어서 대량으로 인쇄를 할 경우 잉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었다. TF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마당’에 잉크절약용 팬시용품을 다시 만들어 제공했다.

여섯 번째, “책수리마수리”를 접한 어린이 사서와 교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이다. 어린이 사서는 “책수리마수리”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골라 각자의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행사에 이용한다. 제시된 프로그램의 전체를 이용할 수도 혹은 부분적으로만 선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때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기획하는 경우 TF팀의 참여 작가가 프로그램의 한 가지를 가지고 어린이들과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오산의 햇살마루도서관은 “책수리마수리”의 자료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했으며, 평택 시립도서관은 “책수리마수리”에 참여한 작가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

마지막은 웹사이트와 직/간접적인 대면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례를 수집하고 새로운 주제와 개발팀원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웹사이트의 참여마당은 주제에 대한 책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하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현장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제가 다음 번의 주제로 채택될 수 있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적극적인 참여자를 다음 번의 팀원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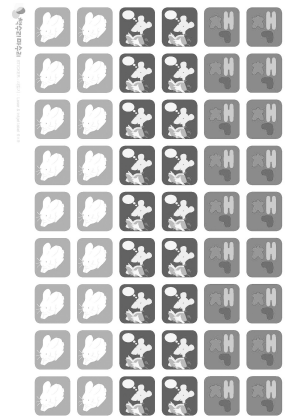
위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수와 정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소통의 과정에서 TF팀은 계속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기획자와 개발자, 운영자, 연수자가 다른데서 오는 비일관성, 불필요한 반복적 설명, 의사소통의 부재 없이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2.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적 특성

“책수리마수리”는 그림책 작가의 그림과 출판 전문 디자이너의 편집으로 활동안과 활동지에 미적 완성도를 높였다. 기존에 인터넷으로 공유되거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활동안이 아이디어의 차원에서만 제공되어 그 내용이 자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혹은 활동지와 함께 제공되더라도 미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 “책수리마수리”에서는 활동안과 활동지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포스터, 가정통신문을 위한 용지, 작은 메모지, 스티커, 상장 등의 형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사서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려고 했다. 포스터는 한글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독서 행사의 일시와 장소, 공지사항 등을 적어 출력하면 된다. 스티커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해진 라벨지에 출력하여 쓸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나 관련 활동지를 만들고 편집하는 사서의 일을 덜어준다는 점 외에도, 그림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림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유명 그림책 작가의 그림을(비록 인쇄본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을 준다.



〈그림 4〉 메인 포스터



〈그림 5〉 스티커

“책수리마수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크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서관활용, 절대적 크기, 상대적 크기, 사회적 크기, 수치적 크기, 미학적 크기의 6가지로 나누었다. 아래의 〈표 3〉은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여준다.

〈표 3〉 “책수리마수리” 전체 프로그램의 활동 구성

범주	활동 제목	작은 활동들
도서관 활용	정보찾기, 보물찾기	책을 나침의 기준으로 분류하기, 우리 도서관 서가 익히기, 십진분류 이해하기, 크기에 대한 질문이 적힌 쪽지를 보고 관련된 책 찾기, 청구기호 보고 책 찾기
절대적 크기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 고래	고래와 다른 동물의 크기 비교하기, 고래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고래수첩 만들기, 고래의 진화 알아보기, 고래의 크기 그리드(모눈종이)에 그려보기
	고래와 우리	고래와 인간에 대한 다양한 도서, 영상, 음악, 이야기 소개, 고래 포경에 대해 토론하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물, 미생물	미생물에 대한 책 소개, 유용한/해로운 미생물 알아보기
	크기의 법칙	크기의 법칙 프랙탈 이해하기, 프랙탈 원리를 이용하여 눈송이, 삼각형, 단청, 프랙탈 아트와 카드 만들어 보기
상대적 크기	우리동네 골목길	우리 동네에서 나만의 이야기 숨어있는 곳 촬영하기, 전지에 골목지도 그리기, 나만의 우리 동네 책만들기, 동네 골목길에서 하던 전래놀이하기
	크기는 □□다.	크기에 대한 단어 퍼즐, 말풍선에 대화 쓰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그림을 보고 대화 상상하기
	재미있어요, 크기	성장에 대한 다양한 그림책 소개, 주변의 큰 것들과 작은 것들 찾기
사회적 크기	귀를 기울이면	책 읽고 등장인물의 뇌구조 그리기, 캐릭터 카드 만들어 인물의 장단점 쓰기, 책읽고 주제가 만들기
	작은 용기로 세상을 바꾸다	Before & After 신문 만들기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통계자료 이용하여 우리나라 이해하기, 통계에 맞추어 간식 배급하고 느낀 점 나누기
수치적 크기	크기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말들	전통 도량형 단위 익히기, 전통 도량형 단위로 쌀, 키, 교실면적을 측정해보기, 측정의 달인 찾기, 표준 도량형이 대두된 이유 추리하기, 내 몸자 만들어 기록하기
미학적 크기	큰 건축물	세계적인 건축물을 비율에 맞추어 그리드(모눈종이)에 그려보기, 우리 동네 건물들 그리드에 그려보기, 모형으로 건축물 만들기

각각의 활동들은 목표, 준비물, 주제도서, 참고도서 및 참고자료, 활동, 활동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두는 〈프로그램 및 활동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IV. 프로그램 개발의 성과와 한계

1. 프로그램 개발의 성과

“책수리마수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름 방학 직전에 사서연수가 종결되었고, 여름 방학을 기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래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전문가 협력의 장점과 아쉬운 점은 분명히 노정되었다.

책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직종의 네트워킹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각 부문의 전문성을 상호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독서교육 연구자는 독서 교육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최근의 이론적/실천적 동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맡았다. 교사는 학교의 공식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아이들의 학년별 특징에 대한 앎, 학교의 재량시간과 수업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그림책 작가는 프로그램에 작가적 창조성과 유머를 가미해 주었고,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쉽게 시각화해 주었으며, 모든 자료를 통일된 디자인 컨셉으로 만들었다. 어린이, 청소년 담당 사서와 사서교사는 어린이 책목록에 대한 앎, 다년간 진행해온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 도서관 독서교육에 대한 현실성과 가능성, 요즘 아이들의 소통 방식에 대한 앎을 제공해 주었다. 중앙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했던 사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TF팀의 프로그램 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예산, 진행, 사서연수까지 중심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의 코디네이션을 조화롭게 수행해 냈다.

다음으로, 전문가 협력은 각자의 전문성을 내어놓는 기회도 되었지만, 서로의 전문성을 배워가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그림책 작가는 인터뷰에서 요즘의 어린이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서로부터 배움으로써 어린이가 가진 정보의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이 부족한지, 그 비어있는 조각들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책은 무엇일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삶과 고민에 공공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예술교육, 인문학교육, 자유로운 참여로서의 교육의 통로로 아이들이 책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로 어린이 독자와의 소통의 공간은 출판사나 인터넷 서점의 프로모션 등 상업적 공간이 대부분이고, 도서관이나 학교라는 공공적 영역과 직접적으로 접촉하

는 기회가 적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 사서와 교사와 함께 ‘어린이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보람있는 작업이었다고 한다.

연구자는 현장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개발, 현장에서의 구현방식, 협동작업이 가져오는 시너지에 대한 고민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 교육학 및 독서교육 이론의 성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의 경우가 많다. 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독서교육활동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어떤 실질적 장애요소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이들의 언어와 경험에 대한 정확한 감각, 요즘의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활동의 영역(Comfort zone), 도서관과 학급의 물리적 환경과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참여했던 사서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서직 내의 모임만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상적인 도서관 업무로도 너무나 바쁘고 노동강도가 센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실에서 또 다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쏟을만한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을 때가 많다. 농담처럼, “하루 종일 발 매고 왔는데, 또 홀로 일하는” 대다수의 어린이 사서의 중복되는 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람된 작업이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린이 사서로서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껏 해왔던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는 있지만, 전문성을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갈망을 가져왔는데,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그러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경험했고, 자신의 현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5년 이상 어린이실에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어린이 사서는 개발팀에 들어가고, 신입 어린이 사서는 사서연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력 프로그램 개발의 장점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과 디자인의 완성, 현장 교사와 사서를 통한 실습, 연수,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보완과 확장,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

전문가 협력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는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로가 만나서 소통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일정을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충분한 모임이 진행되지 못한 채로 프로그램의 마감을 맞추어 서둘러 작업해야 했다. 원안대로라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능한 모두 시험운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완 작업하고 시험 운영된 프로그램 영상을 사서교육 때에 이용하려 했다. 시간의 부족으로 시험 운영은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책수리마수리”를 운영한 사례에 대한 조사와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사이트의 참여마당을 열어 두었으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TF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업데이트, 홍보가 부족한 점이 지속적 활동 미비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2010년도의 프로그램 개발은 시도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전문가 협력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의 한 사례인 “책수리마수리”를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지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우선, 현재의 독서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발 닿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담은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이 처하고 있는 자연적 환경인 갯벌, 늪지, 농촌, 산촌, 도시의 특성을 담은, 혹은 인문적 유적인 역사적 유적, 풍속과 축제를 담은 독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제주 설문대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제주그림책연구회의 제주 그림책시리즈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학자, 민속학자나 예술가, 이장, 박물관 큐레이터가, 주제에 따라서는 지역의 다양한 직업군들, 결혼이주여성 등도 프로그램의 TF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가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에게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팀에 패션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거나, 야구 코치가 참여하는 등 흥미로운 외부인사의 참여로 프로그램이 풍부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특수한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가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독서교육을 기획해 볼 수 있겠다. 다문화가정, 조손 가정, 장애아이, 학습부적응아 등을 위한 독서교육은 전문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의 한인학교와 외국의 학교에서 세계 지리나 역사, 문화

시간에 한국에 대한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리스트와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몇몇 한국의 어린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어린이 책목록과 함께, 한국에 대한 독서 전/후 활동 프로그램을 한국인 작가가 그린 활동지와 함께 영어로 제공한다면 세계 각국의 도서관과 교사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직업사회에서 익숙했던 소통의 방식과 일의 방식을 조율하고 맞추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전문성을 내놓고 서로 배우려는 '대화'를 시작할 때, 그 열매는 훨씬 알차고 풍성할 수 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과정에 어린이 사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그도 전문적으로 성장하며, 그 열매를 맛보는 아이들도 책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책수리마수리"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아주 작은 주문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협력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모델은 독서 프로그램의 풍부함과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더 큰 마법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참 고 문 헌

- 곽철완, 노영희, 박종범. "어린이 서비스 협력체계 및 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2호(2008. 6), pp.63-84.
- 곽철완, 노영희. "어린이 사서의 상호협력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405-427.
- 김명순. "활동 중심 독서의 의미와 방향." 독서연구, 제14권(2005. 12), pp.55-75.
- 이연옥. "어린이 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233-256.
- 정혜미, 차미경.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12), pp.161-181.
- 차미경 등.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6), pp.95-115.
- Bewick, L. and Corral, S. "Developing librarians as teachers: A study of their pedagogical knowledge."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March 2010), pp.1-14.
- Guthrie, J. T., Wigfield, A., and Perencevich, K. C. *Motivating reading comprehension: concept-oriented reading instruction*. Mahwah, N.J. : L. Erlbaum Associates, 2004.
- Morrow, L. *The Literacy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 Boston : Allyn & Bacon, 2001.
- Sarrag, A. "Inspiring Young Readers: The Role of Libraries in Promoting Reading for

Pleasure.” 제4회 국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심포지엄 자료집: 녹색 미래의 꿈과 상상의 엔진.
어린이도서관, 2010. pp.55-77.

책수리 마수리 홈페이지. <<http://bookmagic.kr>> [인용 2010. 8. 20].

ALA Home page.

<<http://www.ala.org/ala/mgrps/divs/alsc/competencies.cfm>> [cited 2010. 6. 8].

UKLA : The UK Literacy Association Home page. <<http://www.ukla.org>> [cited 2010. 7. 23].

Collaborative Summer Library Program Home page.

<<http://www.cslpreads.org/>> [cited 2010. 8. 16].

